

“나눠야 행복...건강 허락하는 한 선행 지속”

●광주 신세계 구두수선 김주술·최영심 부부 ‘KT 희망나눔인상’

‘구두 수선비 10%씩 적립’ 18년간 지역에 2천500만원 기부

2021년 ‘광주시 명예의 전당’ 헌액...“희망전도사 역할 충실”

“나눔은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선행을 이어가겠습니다.”

광주에서 구두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주술(89·사진 왼쪽)·최영심(70·여) 부부가 KT 희망나눔재단의 ‘희망나눔인상’을 수상했다.

25일 KT그룹 희망나눔재단에 따르면 희망나눔인상은 나눔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한 사람(단체)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이를 전파하기 위한 상으로, 올해 마지막 희망나눔인상에 구두 수선비를 모아 나눔을 실천해 온 김씨 부부를 선정했다.

김씨 부부는 동구 대인교차로에서 ‘신세계 구두수선’ 구두방을 운영하고 있다. 구두 수선비를 받을 때마다 10%씩 돼지저금통에 모아 지난 2006년부터 18년간 총 2천500만원을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따뜻한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남편인 김씨는 한때 제화점을 운영해 큰돈을

벌기도 했지만 IMF(국제통화기금) 시절 사업 실패를 겪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생계를 위해 구두 수선을 시작했고 그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어 기부를 시작했다. 아내 최씨도 흔쾌히 동참했다.

꾸준한 기부를 이어온 결과, 지난 2021년 광주 시에서 선정하는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로 선발되기도 했다.

명예의 전당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면서 광주 공동체의 가치를 몸소 실천한 아름다운 시민들의 뜻과 정신을 기념하고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킨 개인이나 단체를 추천받아 지정하고 있다.

이들 부부의 선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8월 동구청에 117만원을 기부했고 이번



까지 총 4회에 걸쳐 437만원을 기탁했다.

이러한 기부를 이어가기 위해 적지 않은 나이지만 김씨는 동네 청소(광주시 노인일자리사업), 최씨는 건물 청소 일을 지속하는 등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나눔을 꾸준히 실천할 계획이다.

김씨 부부는 “주변에 작은 도움을 주고자 시작한 일에 몇몇 손님들이 동참 차원에서 수선비보다 더 큰 비용을 내거나 거스름돈을 받지 않

는 경우가 있다”며 “그분들 덕분에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기쁨을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겸양의 태도를 보였다.

이어 “그간 기부를 통해 나눔의 행복을 알게 돼 새로운 삶을 얻은 느낌이 든다”며 “나눔은 비워야 채울 수 있고, 앞으로도 조금이나마 더 많은 이웃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선행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

/안태호 기자

광주글로벌원정대, 캄보디아서 첫 활동 ‘눈길’

광주시의 대표적 공공외교 시민활동인 ‘광주글로벌원정대’가 캄보디아에서 포용도시 광주의 가치를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가 주최하고 광주국제교류센터가 주관한 제1기 광주글로벌원정대가 지난 19-24일 캄보디아 캄pong페우주와 프놈펜에서 공공외교 시민활동을 펼쳤다.

광주글로벌원정대 1기는 중학생부터 정년을 앞둔 중장년층까지 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 37명이 참여해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10주년을 기념한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또 진료소 인근 현지 학교 학생 12명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인 광주

의료 봉사·태권도 등 체험 제공 ‘홍보대사’ 역할...포용도시 광주 알리



광주 5개구 가족센터 ‘1차년도 성과공유회’

광주 5개구 가족센터는 최근 송원대학교에서 ‘이주배경 청소년 성장 기회 격차 해소 지원사업’ 1차년도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해당 사업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했으며,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 성숙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했다.

성과공유회에는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들과 보호자를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의 배우자 유귀숙 여사, 이명노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각 구청의 업무 책임자와 실무자, 교육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으며, 참여 학생들의 밴드 공연, 성과 보고, 소감 발표, 수료증 증정 등이 이뤄졌다.

/주정학 기자

무안(주)신흥산업, 전남도 중소기업 대상 ‘은상’

무안군은 25일 “무안군 소재(주)신흥산업이 ‘2024 전남도 중소기업 대상’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신흥산업은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혁신성과 지속가능성에서 호평 받았다.

전남도 중소기업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 발전과 성장을 독려하고자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해 도지사 시상과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주)신흥산업을 포함한 4개 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주)신흥산업은 2015년 설립 후 청계농공단지에 위치한 1, 2공장을 기반으로 나라장터 소품몰에 7개 품목을 등록하고 생산·판매중이다. 내·외 다양한 고객사와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2025년도에 특히 개발과 신제품 출시를 통해 고용 창출 및 주민과의 상생을 도모



할 계획이다. 김정철(주)신흥산업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와 품질관리,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표로 임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전남도 감사관실, 적극행정 경진대회 포상금 기부

전남도 감사관실이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으로 받은 포상금 중 일부를 요양원에 기부했다.

전남도 감사관실 직원들은 지난 24일 완도군의 청해요양원과 고금요양원을 찾아 포상금으로 화장지, 세제, 과일 등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구입해 기부하고 지역어르신들의 발벗이 돼줬다.

김세국 전남도 감사관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은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감사를 한 결과”라며 “이번 기부로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따뜻한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매년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개최하는 법정부 대회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전국 최초로 공유재산 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누락 자산 8천208억원을 발굴하고 방치된 지식재산권 등록, 불필요한 상수원보조구역 해제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김재정 기자

정원장학복지재단, 구례군에 나눔 물품 전달

구례군은 “최근 (재)정원장학복지재단이 토지연 신촌마을 주민 및 구례군 관내 가정위탁세대에게 가구당 쌀(20kg), 돼지고기 1세트, 생필품 종합세트 1개, 라면 1박스 등 총 60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원장학복지재단은 구례군 토지연 신촌마을 출신 김길수 이사장이 2000년 설립한 단체로, 2007년부터 매년 독거노인, 가정위탁세대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 나눔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김용만 이사장은 “선진의 뜻을 받들어 지역 어르신들과 가정위탁 세대에 마음을 전하고 있다”며 “어려운 시국이지만 이웃들이 건강하게 동절기를 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군에 따뜻한 정을 나누며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 앞장서 준 정원장학복지재단에 깊이 감사하다”고 전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전남 출신 김향숙씨, 한여농 중앙회장 당선



전남도는 25일 “(사)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 제15대 회장으로 전남 출신으로 처음으로 김향숙(사진) 전남도 한여농 회장이 단으로 출마해 당선됐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5년부터 2년이다.

1986년 창립한 한여농 중앙연합회는 그동안 14대, 9명의 회장을 배출했다.

김향숙 당선인은 한국방송통신대 가정학과를 졸업하고 한여농 전남도연합회 제10·11대 회장, 전남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특히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에 노력했다.

김향숙 회장은 “농업·농촌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개발은 한여농의 설립 목적”이라며 “소외된 여성농업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양시원 기자



전남여성 6명 ‘지역인재 9급 공무원’ 합격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는 25일 “올해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면접 전형에 응시한 학생 6명 모두가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합격자는 ▲이세아(일반행정직) ▲양나래(세무직) ▲공민서(세무직) ▲하은서(세무직) ▲김지윤(세무직) ▲이다솜(일반행정직) 학생이다.(사진 왼쪽 위 첫번째부터 시계방향)

전남여상은 ‘지역인재 특별전형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1년부터 이번 합격자가 총 6명의 국가직 공무원을 배출했다. 이는 전국 특성화 고등학교 중 가장 많은 규모다.

이 같은 성과는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무원반 덕분이다. 공무원반은 필기시험에 대비한 국어, 영어, 한국사 방과 후 수업과 함께 면접 대비 전공 스터디, 스피치 훈련, 모의 면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최규명 전남여성 교장은 “교사들의 내실 있는 지도와 맞춤형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학생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미 기자

인사

광주 동구 ◇4급 승진 ▲주민복지국장 이원근 ▲경제환경국장 성경훈 ▲도시공간국장 이안수

◇4급 전보 ▲자치행정국장 장동인

◇5급 승진 ▲총장동장 직무대리 김상범 ▲동명동장 직무대리 송경란 ▲서남동장 직무대리 강신태 ▲주민안전담당관 직무대리 나영수 ▲산수2동장 직무대리 김진영 ▲지원1동장 직무대리 나형 ▲지산동장 직무대리 김유정 ▲건축과장 직무대리 오정아 ▲계림2동장 직무대리 과장민

◇6급 전보 ▲기획예산실장 기길호 ▲문화예술택육과장 주영주 ▲일자리경제과장 이곤희 ▲기후환경과장 이영아 ▲자연순환과장 김효열 ▲도시공간계획과장 심영기 ▲주거정책과장 장훈 ▲비서실장 노희철 ▲세무2과장 유영자 ▲위생과장 김혜정 ▲보건사업과장 민정남

모임

●2024년 제3차 이사회의 및 연말총회(사단법인 한국대나무발전협회 회장 김일태)=26일(목) 오전 11시 덕인관, 담양군 담양읍 죽향문화로 1121, 061-381-7881 (사무국장 장광호 010-7169-3357). ▲담양지역발전협의회(회장 이병호) 12월 월례회의=27일(금) 오전 11시30분 담양공고 앞 원조제일숯불갈비, 담양군 담양읍 마두길 4.061-381-1234 (사무국장 이달성 010-3638-3809).

결혼

▲노성일·이호영씨 차남 진성(광주 동구의회 부의장)·한상균·남금자씨 장녀 성숙양=28일(토) 오후 5시30분 광주 서구 죽봉대로 153 웨딩그룹 위더스 광주 3층 펠리체홀.